세라믹스소재 '활생면'

일본의 삼자사에서는 드레스셔츠 소재로 흡수속건과 방오성 등 생활기능을 갖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천연세라믹스를 포함하고 있는 [활생면]으로 고도의 기능성을 갖는 소재로서 내년 춘하제품부터 본격적으로 상품 전개를 개시하려 한다.

드레스셔츠 분야에서는 상업세탁시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동사에서도 올 추동제품부터 흡수속건성과 방오성, 보온성 기능을 갖는 소재 및 가공소재를 전면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재, 방적회사와 협력하여 그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.

각종 기능소재 중에서 동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면 내부에 천연, 다공질 초미립세라믹스를 포함시킨 활생면이다. 종래의 세라믹스상품은 염색가공공정에서 날염이나 코팅하는 것이 주류였다.

활생면은 고흡수성, 고건성, 항균방취성, 고내구성, 안전성등을 갖고 있으며 통상의 면소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염색가공할 수 있다. 본소재는 올해 봄부터 일부 상품화되고 있지만 내년 춘하제품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할 예정이다. 또한 금후에는 드레스셔츠 외에 내의, 구두, 면모포등의 상품화를 고려중이다.